

조 대 훈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회과 예비교사들의
젠더인식에 관한 질적연구

-수도권 소재 어느 여자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최 문 선

사회과 예비교사들의
젠더인식에 관한 질적연구

-수도권 소재 어느 여자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조 대 훈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최 문 선

인 준 서

최문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젠더(gender, 또는 사회적 성)는 생물학적인 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상징적 체계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젠더 개념에 관한 인식은 예비교사에게 있어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젠더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 젠더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젠더 개념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예비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비교 검토한 후, 예비교사 고유의 젠더 인식을 바탕으로 예비교사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사회과 교사교육과정 안에서 예비교사들은 어떠한 젠더 개념을 학습하고 있는가?

둘째, 일반사회과 예비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젠더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일반사회과 예비교사들의 젠더 인식의 특징은 학교교육과 교사교육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기법을 활용하여 6명의 예비 교사들의 젠더 인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결과 젠더 인식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분류된 유형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3명의 예비 교사들을 주목하였다. 사

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젠더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유형, 여성에 관한 사회구조적 문제점과 여성의 차별은 눈에 보이지만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한, 그래서 사회라는 거대한 우리의 성에 갇혀 버린 느낌이 드는 유형, 그리고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이분법적인 구분 없이 젠더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고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시적 수준에서 젠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고, 젠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 탐구로서의 교사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사교육의 방향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집단선정과 관련하여 여자 사범대학의 교육적 맥락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특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인터뷰했기 때문에 이 학교 다수의 사범대학생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3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4
II. 이론적 배경	6
1. 젠더 개념과 젠더 교육	6
2. 젠더와 교사교육	15
III. 연구방법론	18
1. 질적연구방법	18
2.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19
3. 자료수집 및 분석	25
IV. 분석결과	29
1. 잔디여자 사범대학	29
2. 일반사회 전공 교육과정 속에 존재하는 ‘젠더’의 특징	35
3. 젠더에 관한 예비교사의 세 가지 내러티브	40
1) 윤아의 이야기: I DON'T CARE, 관심없어요!	40
2) 씨니의 이야기: 우리의 성에 갇혀 버렸어요.	47
3) 유리의 이야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죠.	54
4) 결론	60

V. 예비교사들의 젠더 인식 속에 존재하는 의미	62
1. 선택적 학습으로 인한 젠더 개념과 정체성 형성 간의 괴리	62
2. 젠더 감수성이 낮은 이유: 종교적 신념과 젠더 교육의 부재	65
3. 젠더 정체성과 분리된 교사교육과정	67
VI. 시사점 및 제언	70
1. 기존 젠더에 관한 이론이 가지는 범주적 한계	70
2. 교실 수업의 핵심 동인으로서 교사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	71
3. 정체성 탐구로서의 교사교육 도입	72
4. 제언	73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배경	22
<표 III-2> 심층 면담 질문 구성표	25
<표 IV-1> 잔디여자대학의 교육목표	29
<표 IV-2> 2006·2007학년도 단대별 성적우수 장학생 현황	31
<표 IV-3>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젠더’에 관한 내용과 그 특징	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미수다 여대생 "남자 키 180cm 안되면 루저"
- 미수다 '루저 발언' 파문, 1억 손해배상 추가 제기
- KBS, '루저'발언 '미수다' 제작진 교체
- "'키 작은 아들' 둔 엄마 눈물 '핑핑'"¹⁾

최근 한 여대생의 '루저(loser)' 발언이 한동안 큰 화젯거리가 되었었다. 공중파 방송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한 그 여대생은 "키 180cm도 안 되는 남자는 '루저'"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루저 발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를 엿볼 수 있는 미시적인 사례임과 동시에, 양성평등 문제에 민감해진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남성의 키와 관련된 발언이 몰고 온 사회적 파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숨겨진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한 개인의 루저 발언, 그리고 해당 연예 프로그램 연출자의 판단은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성의 외모에 대한 성차별적 언행은 공중파 방송에서 더 자주 등장하며, 종종 웃음의 소재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차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에서 우리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한국 사회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가족, 학교,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젠더(gender) 사회화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젠더 또는 사회적 성이란 한 인간의 생애에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1) 2009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 포털 사이트 메인화면에 등장했던 기사제목 몇 가지를 인용.

사회적 변인 중 하나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간은 태어난 이후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 또는 남성의 성역할을 차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특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로 이어져 왔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어려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을 포함시키기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는 젠더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재성·강성혜, 1995; 허창수, 2004). 그렇기 때문에 젠더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젠더 교육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같은 젠더의 개념은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교육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사는 교실수업 안에서 형성되는 공식적·잠재적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박윤경, 2004; 조대훈, 2004; Johnson, 1994, Thornton, 1991).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가지는 젠더 개념에 관한 인식은 학생들의 젠더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양성평등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 안에서 교사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인이 된다(Feyza, 2009).

무엇보다도 젠더의 개념이 교사교육에 대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양성평등교육의 실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교사교육 그 자체의 목표와 방법론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21세기의 교사교육의 개념은, 마치 규격화·표준화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동일한 교과지식을 습득한 교사들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사는 결코 몰개성적·보편적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교육적 맥락 속에서 특정 교과목의 내용을 가르치는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해 가는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의 인간에 해당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교사’는 이러한 다층

적인 특성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자신의 교사 정체성과 전문성을 탐구해 가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Bullough & Gitlin, 1995; Clandinin & Connelly, 2000).

이러한 점에서 젠더 정체성은 교사 정체성 탐구라는 교사교육에 있어, 남녀 교사의 구분이라는 피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개개인의 교사가 전문가적 교사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를 구성한다.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교사인 나는 어떠한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성 또는 남성 예비교사에게 교사란 직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비교사는 교사교육과정을 통해 젠더의 개념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 교사는 교실 안에서 젠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교사 정체성 탐구로서의 교사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젠더의 개념은 시민교육의 중핵 교과인 사회 과목을 담당할 사회과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사회과 예비교사들은 젠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교사전문성은 어떠한 젠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까? 예비 교사교육과정을 통해 젠더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은 양성평등교육의 수준을 넘어서, 한국의 민주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교사 양성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요구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젠더 개념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예비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비교 검토한 후, 예비교사 고유의 젠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과 예비교사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사회과 교사교육과정 안에서 예비교사들은 어떠한 젠더 개념을 학습하고 있는가?

둘째, 일반사회과 예비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젠더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일반사회과 예비교사들의 젠더 인식의 특징은 학교교육과 교사교육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사범대 일반사회과 교사교육과정 안에서 예비교사들이 학습하는 젠더 개념을 파악하고, 그들이 인식하는 젠더 개념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미시적 수준에서 젠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젠더에 관한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 예비교사 개개인의 인식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젠더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새로운 관점들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정체성 탐구로서의 교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반사회과 예비교사들이 젠더라는 요인을 통해 교사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기존 교사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교사교육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다양하고 공평한 젠더 개념을 배우기 위한 새로운 교과목 개설만을 강조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집단선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한계점을 갖

는다.

첫째, 여자 사범대학의 예비교사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자대학과 교육적 맥락이 다른 남녀공학 대학교나 교육대학의 예비교사들의 이야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사회교육과 4학년 학생들 중에서 특정 학생들만을 인터뷰한 것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의 결과가 이 학교 사범대학 전체의 이야기로 쉽게 일반화될 수는 없다. 또한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등 다른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들의 젠더 인식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젠더 개념과 젠더 교육

1) 젠더

남녀를 구분하는 성의 개념은 보통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로 나뉜다. 생물학적 성이 한 개인의 해부학적 특징에 근거하여 남성 혹은 여성을 결정하는 유전적·신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성은 사회·문화적인 과정에서 획득되고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산업사회학회, 2003).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보부아르의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다.”라는 말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성(性)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 개인은 사회 내에서 여성적인 것, 남성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속성들을 인지하고 학습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정체감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규범에 따르는 성 역할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성 혹은 여성이 된다는 의미이다(유현옥, 2004). 즉, 젠더라는 개념은 곧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국어에는 ‘성(性)’이라는 개념 하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광 사회적인 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물학적’,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한다. 북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눈(snow)에 관한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어떤 문화적 특징을 지닌 사회나에 따라 언어의 사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에 관한 용어가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우리 문화에서는 여성과 여성성 혹은 남성과 남성성을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하나의 맥락

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비해 영어권에서는 'sex'와 'gender'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Braun(2002)에 의하면 젠더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첫째, 어떤 사실을 생물학적 또는 인식론적 본질이라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암묵적으로 그것이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여성과 남성에 기대하는 역할, 태도, 가치 등을 획일적으로 생물학적인 문제로 환원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기존에 통용되었던 '여성성' 및 '남성성' 개념에 비하면 젠더 범주는 양성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양성 사이의 본질주의적 구분을 극복하면서 양성간의 경계를 이동 가능하게 만든다.

셋째, 페미니즘의 경우보다 훨씬 남성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 정체성과 텍스트에 구현된 성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도록 자극할 수 있게 한다. 페미니즘은 종종 배타적 혹은 배제적 범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여성연구'를 하는 남성들이나 '남성연구'를 하는 여성들에 대한 미묘한 거리낌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성학자와 여성학자들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범주인 젠더는 통합적 지식을 창출하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도 유리하다.

이렇게 젠더개념은 섹스와 의 개념적 구분으로 인하여 사회·문화적 성불평등 현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의 영향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이론적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체 담론과 정체성 담론에 심대한 함의를 갖는 개념으로 발전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젠더에 관해 어떤 합의된 공론은 없다. 섹스와 젠더의 구분이나, 여성성과 남성성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 양성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연

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반면 젠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학자와 비평가들이 어떻게 젠더를 사용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는 논쟁이 무성하다.

사람들이 젠더 범주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이유는 각자의 이론적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이나 후기구조주의의 배경을 가진 이론가들의 경우 젠더는 무엇보다도 정체성과 언어, 상징성 질서를 분석하는 범주이다. 그에 반해 역사적이고 이데올로기 비판적 경향의 학자들은 일차적으로 젠더표식을 통해 사회에서 작동되는 권력 관계, 이데올로기적 구조 및 사회적, 문화적 결과에 관심을 갖는다. 즉, 젠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각 경우마다 그 이론적 배경을 동시에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Braun, 2002).

종합해 보면, 젠더란 생물학적인 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체계로서 여성성과 남성성, 성역할 등의 하위범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젠더 개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심층면담의 과정에서 여성성, 남성성 그리고 성역할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젠더 형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젠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한 논의는 학자별로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생물학 이론, 젠더 사회화에 관한 이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젠더에 관한 생물학 이론으로 성의 생물학적 특성이 젠더의 차이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여성과 남성은 XX, XY처럼 서로 다른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다른 성격적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 연구 자료를 토대로 그들의 주장을

입증한다. 그리고 뇌구조와 뇌 발달과 관련하여 사람은 한 쪽의 뇌만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강한데 여성은 우뇌, 남성은 좌뇌가 더 발달되었다는 실험 결과를 지적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생물학적 설명은 사회화를 강조하는 이론에 의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가고 있지만, 완전히 생물학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둘째, 젠더 사회화와 관련된 대인 이론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젠더가 형성됨을 주장한다. 어렸을 때 젠더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 간의 대인 관계를 강조하며, 대부분 어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초기 관계는 주로 양육자, 즉 전형적인 어머니와의 관계라고 한다. 또한 어린아이와 부모님을 포함한 다양한 어른들 사이에서 주입되는 학습과 역할모델에 주안점을 두어 개 개인은 관찰, 실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남성답게 또는 여성답게 자란다고 설명한다.²⁾

셋째,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에서는 그동안의 젠더는 데카르트식으로 쉽게 젠더를 섹스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하게 했다고 비판한다. 마치 육체와 정신을 구분지어 이성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이다. 젠더를 섹스로부터 추상화하지 않고 섹스와의 연관성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젠더와 섹스는 ‘정체성’이라고 불러왔던 것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의 상이한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되는 담론적 영역의 부분이라고 본다. 특히, Butler(1990)는 섹스와 젠더의 구분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며 다소 극단적 섹스 역시도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젠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부아르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것 역시, 태어나는 여성과 만들어진 여성을 구분하고 몸과 정신을 이원화한다고 비판한다.

요약해 보면, 젠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기는

2) 젠더에 관한 생물학 이론과 대인이론의 자세한 내용은 Wood의 책 『젠더에 갇힌 삶(Gendered lives)』 pp.52-82 참고.

하나 생물학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써 정체성과 주체성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정체성 측면에서 젠더를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젠더 교육의 패러다임: 여성주의 교육

곽삼근(2002)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끼친 여성주의 교육(feminist pedagogy)에 관한 이론 및 동향을 시기적 발전추이에 따라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급진적 여성주의를 포함한 전통적 여성주의 교육이론과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와 생태 여성주의를 포함한 근대 후기 여성주의 교육이론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자유주의 여성주의 교육은 여성들도 교육을 받고 이성적인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신념에 근거하며, 여성들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똑같은 취급이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사회주의 여성주의 교육은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성별 분업의 재생산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분석한다. 이 입장에서의 교육적 연구 작업은 실천적이기보다는 주로 이론적이었고, 학교를 토대로 추진한 연구가 불충분하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급진주의 여성주의 교육은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남성의 지배와 가부장적 구조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그들은 문화와 지식 대부분이 남성에게 의해 독점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성 정치학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 입장은 교육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해서 명확한 해설이 가장 부족하다는 비

판을 받았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교육은 지배질서의 유형을 비판하면서 여성적인 것과 타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즉, '나'를 중심으로 타자를 대상화하고 파악하며 그들을 정복함으로써 세계를 경영하려는 근대성을 비판한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에서는 이러한 근대성을 곧 남성주의 패러다임으로 지적하며, 이 속에서 여성은 항상 감성적 존재이며 '타자'로서 주변화 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라는 주체는 여성 자체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실이나 사건들을 여성이 주체적으로 다른 위치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생태 여성주의 교육은 여성과 자연을 분리하고 배제시키는 가부장적 세계관과 사회구조가 근대성의 중심에 엄존하며, 이것이 자연착취와 여성억압을 낳는 근본 원인이라고 파악한다.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자연관, 인간과 환경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등을 생태계 회복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나와 타인, 나와 사물 및 환경 그리고 나와 동식물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을 오늘날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다섯 가지의 여성주의 교육관은 모두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젠더를 형성하는 이론적 접근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교육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4) 한국 젠더 교육의 관점: 양성평등교육관

양성평등교육의 기본방향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평등권 보장의 현실을 객관적인 이론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과 남녀평등실현에 장애가 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도록 하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인간의 귀함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녀 모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성차별과 성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³⁾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되어온 양성평등교육은 단순히 ‘기회의 평등’차원에 머물러서 양적인 기회균등에 그쳤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살펴보면, 공식적으로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을 주장한 것은 1차 교육과정부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점이 적용된 것은 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1996년이라고 한다.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기술과 가정이 통합되어 남녀 학생이 모두 두 과목의 내용을 이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에도 이러한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성차별적인 내용이 삭제되었고 성 평등한 내용을 제시하는 등 양성평등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허창수, 2006).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제거되어 남녀평등적인 내용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나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아직도 교육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고 한다(조경원, 1999). 그러므로 교사들이 의식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은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표면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지향한다고 있더라도,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가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아동의 성차별적인 가치·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김유정, 2005).

3) 자세한 내용은 류생호(2002)의 『양성평등교육의 이해』 참고

5) 종합: 젠더 교육의 정의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젠더 교육의 방향은 여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강조한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교육관을 기본으로 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인 평등만을 강조하는 양성평등교육의 중립적인 관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젠더 개념으로부터 젠더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 교육은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대부분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언급할 때만 젠더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젠더 정체성이라는 것은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것인지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젠더 교육은 자신 고유의 젠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젠더 교육은 젠더 감수성⁴⁾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젠더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적인 모순 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이분법적인 젠더 사회화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감지해낼 줄 아는 민감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4) 젠더 감수성(gender sensibility)이란 아직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젠더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민감성을 뜻하며, 이것은 비대칭적인 권력의 작동과 관계적으로 작동되는 성의 차이에 민감하다는 것을 말한다. 젠더 감수성을 가짐으로써 이 사회의 권력에 대해 민감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남녀의 원래의 그 의미가 해체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새로운 관계에 대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성에 주체적으로 종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오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여성성이 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주체적 종속에서 벗어나고 왜곡된 젠더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인지능력은 함양하기 위해서는 젠더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변혜정의 여성신문, 995호 2008년 8월 29일; 교수신문, 2009년 2월 23일; 성신학보, 521호 2009년 11월 9일 기사 참고).

셋째, 기본적인 차이를 고려한 성평등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교육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젠더 감수성의 증진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충분히 다른 부분과 같은 부분이 공존함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 쪽에 차별적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실천의 영역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젠더 교육은 학교교육과 교사교육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교사가 되려는 사람, 교사가 된 사람 모두에게 어떠한 기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 참여자로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젠더 교육관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젠더와 교사교육

1) 교사의 성역할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교사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은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학습되어 하나의 잠재적 교육의 예가 될 수 있다. 교사가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전개할 때만이 학생들도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 및 양성평등의식 정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유정, 2005).

허창수(2006)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은 이미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교사들은 성인지 관점이 미비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에 있어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전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숙·양애경·김홍숙(1995)과 윤명옥(2002)은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의 양성평등 의식은 확인하였지만 그들의 수업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어떤 개념이나 사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영역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사교육안에서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과 젠더 인식이 실천과 연결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젠더에 관한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의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관찰의 대상에는 자신의 수업 역시 빠질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자신이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무감각하게 교과서에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정체성 탐구로서의 교사교육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교사와 맞는지, 자신은 학생들을 사랑하는지 혹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모습의 교사가 될 것인지 등 교사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 켄더는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 태도, 신념등과 연결되면서 정체성과 주체성과도 깊은 연관관계를 맺는다. 즉, 교사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켄더는 중요한 요소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 교사교육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체제에 적응한 방식의 교육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차섭(2004)에 의하면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사범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간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04년 3월 사범대 가산점 폐지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바로 이러한 지적을 합당하고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범대학의 존립 자체를 흔들여 놓는 이와 같은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바로 사범대 교사교육의 방향이 타 단과대학에서도 배우는 이론교육이 아닌 다른 것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것이며 이것이 곧 교사 전문성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유솔아, 2006; Bullough & Gitlin, 1995; Clandinin & Connelly, 2000; Ottesen, 2007).

특히, Bullough & Gitlin(1995)은 기존의 훈련 중심의 교육에 비판을 가하며 4가지 대안⁵⁾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과 학교 맥락을 고려한 반성이야말로 교사교육이 정말 교육적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반성은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재고하고, 재구성하는 것, 반응하는 것, 혹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교사들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게 고민할 수 있

5) Certification, Work context, Biography, Reflection

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은 예비교사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어떠한 교사인지를 상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는 데, 이러한 자신에 대한 반성과 탐구과정에서 젠더는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PDS(Prsprofessional Development Schools)⁶⁾라는 교사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교육연합체가 미국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전문 학습 공동체가 평생학습을 통해 전문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좁히며, 맥락에 근거한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학교조직 구성원이자 교육과정 실행과 교육변화의 주체자인 교사들의 변화가 곧 학교변화로 연결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부터이다(유솔아, 2006). 즉, 여기에서도 맥락과 교사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의 변화란 교과에 관한 지식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식, 고찰, 성찰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젠더라는 요소가 투입되게 된다면 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종합해 보면, 젠더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은 교사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변인 중의 하나인 젠더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교사의 모습이나 교육의 형태 등을 비판적으로 보게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곧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교사 전문성까지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자세한 내용은 <http://www.ncate.org> 참고.

Ⅲ. 연구방법

1. 질적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과 교사교육과정 안에서 예비교사들이 학습하는 젠더 개념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젠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교육과정 속에서 배우는 객관적인 젠더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개념을 예비교사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젠더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양적연구보다는 예비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탐구하는 질적 연구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과 관련된 현상은 통제된 몇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그 속에 존재하는 맥락과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특히,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 교육,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중요시 되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할 때에는 그 중심이 상당히 복잡 오묘한 존재인 인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현상의 맥락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연구 맥락의 단순화하며 한계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특징을 가진다(조용환, 2002). 젠더鉈 肅肅鉈예비교사들의 생(生) 等 아보려고 하는 본 연구 역시 여자대학과 사범대학이라는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내러티브는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과 그러한 연관성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를 구성하게 되며, 새로운 경험에 의해 그리고 관점의 변화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 역시,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젠더 개념과 젠더 교육

에 대한 관점과 의미를 파악하게 되므로 내러티브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삶의 사건을 넘어 삶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자아를 이해할 수 있다(김영천, 2006). 즉, 젠더 개념을 매개로 하여 예비 교사들의 젠더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을 예비 교사들의 삶을 통해 이해한다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가지는 젠더 인식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비 교사들의 삶의 맥락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 보다는 질적연구가 훨씬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1) 연구자의 위치

연구자는 여자중학교에서 남녀공학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상당한 문화적 충격에 휩싸였었다. 같은 반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중학교 때의 여학생들과 다르게 남학생들이 원하는 모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고, 몇몇 선생님은 같은 사건을 두고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다른 처벌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아침조회시간 때 발생한 일명 ‘이어폰 사건’⁷⁾이었다. 기존의 남학생들과 비슷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교사의 말에 순종적이지 않았던 여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권력행사

7) 평소에 자기주장이 강해 담임선생님(남성)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한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조회시간 그녀는 노래는 듣고 있지 않았지만 이어폰은 귀에 꽂은 상태로 앉아있었고 이 모습을 본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 이름을 불렀으며 이에 그녀는 이어폰을 빼면서 ‘아무것도 듣지는 않았어요’라고 볼멘소리를 하였다. 선생님은 기분이 나빠지셨는지 그녀를 교탁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반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뺨을 심하게 때리셨다. 종종 남학생들도 이어폰을 낀 채 앉아있었고 선생님도 그저 빼라고 할 뿐 큰 제재를 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행동은 납득이 가지 않았었다.

방식이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 여성으로서 나의 삶 그리고 교사의 위치에 관하여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여자 사범대학으로의 진학은 젠더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 안에서의 수업이나 학생들 간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주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범대학의 분위기 때문이었다. 직접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설득하여 온라인 독서클럽을 만들었고 여성학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성,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대학원 입학 후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학과조교를 하면서 예비교사교육 현장에서 발견되는 젠더에 관한 특징들을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많은 학부생들과 만나고 학과행사에 참여하면서 여학생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생활하는 모습, 현재의 사범대학의 분위기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리고 2008년 2학기 때 개설된 ‘교육에서의 질적연구방법’이라는 수업을 수강하면서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사범대 여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사범대학 교육의 의미’라는 주제로 직접 소규모 질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학생의 삶과 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고찰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예비 교사들을 관찰하는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교 그리고 선배라는 위치에서 그들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선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치는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내부자의 관점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외부자의 관점을 모두 견지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이미 한번 경험해 본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적 경험을 통해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2)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잔디여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4학년 학생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갔느냐 하는 정도이다(김영천, 2006).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탐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연구자와 일정 기간 만남을 통하여 이미 라포를 형성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총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대학원 수업의 소규모 연구과제에 참여했던 학생들로, 연구자는 이 과제를 위하여 학생들과 1주일에 1회 혹은 2회 인터뷰, 수업 참여관찰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Spradley(2006)가 언급한 좋은 제보자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자이고,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외부인의 시각으로 자신의 문화를 분석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4학년이므로 다른 학년에 비해 젠더 개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배웠을 것이고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학생회 임원이었기 때문에 학업뿐만 아니라 학과활동에도 적극적이므로 누구보다도 학교, 학과에 대한 애착이 컸고, 그 만큼 더 사범대학의 문화에 깊이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취업이나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사범대 안에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젠더 교육과 교사교육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

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젠더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는 과정 중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분류된 유형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 젠더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었던 3명의 예비 교사들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내러티브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다.

3) 연구 참여자의 배경

질적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원칙 중 하나인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이름과 연구 참여자들의 본명은 가명으로 대신 하였다.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배경

이름	나이	형제자매	중학교-고등학교	사범대학 선택 이유
윤아	25	외동	여자-여자	가족의 권유
써니	24	언니	남녀공학-남녀공학	본인의 의지
유리	25	남동생	남녀공학-남녀공학	본인의 의지
효연	24	남동생	여자-여자	교사인 아버지의 영향
윤아	25	여동생 2명	남녀공학-남녀공학	사범대학에 진학한 친구의 영향
서현	24	언니	여자-남녀공학	성적에 맞춰서 진학

(1) 윤아

집안의 외동이었던 윤아는 부모님으로부터 평범한 여성의 삶을 기대 받으며 자라났고, 중·고등학교는 모두 여자학교를 다녔는데 성차별적인 발언이

나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삼수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계열을 희망하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외삼촌의 강력한 권유와 부모님의 바람으로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3학년 당시 학생회 임원으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학과행사를 진행할 때 기존과는 다른 내용과 형식으로 적극적이고 즐겁게 일하였다.

(2) 씨니

씨니는 언니와 함께 ‘어차피 시집가면 다하는 일인데...’라며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다. 하지만 친가 쪽은 남아선호사상이 매우 강하였는데, 씨니의 아버지는 장남이었지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친가 모임에 가면 할머니께서 작은 아버지 아들을 보며 집안의 장손이라면서 치켜세우는 광경을 말없이 지켜봐야 했다고 한다. 학교는 중·고등학교 모두 남녀공학을 다녔으며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는 사회과학 계열의 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깨닫고 반수를 통해 잔디 여자 사범대학에 입학하였다.

(3) 유리

유리는 남동생에 비해 부모님의 관심을 더 많이 받으며 자라왔다고 한다. 부모님은 유리를 남동생보다 더 믿고 의지하시며, 유리에게 밖에 나가서 당당하고 열심히 살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다고 한다.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다녔으며 남녀 차별을 느껴본 적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기보다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해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다. 대학 학과 선택은 교사가 되고 싶은 본인의 의지와 그러한 결정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함께 어우러졌다고 한다. 여성학 교양강좌를 직접 찾아 들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4) 서현

서현이는 아버지가 교사인 가정에서 남동생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자라났다고 한다. 하지만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에게는 교사가 되기를 기대하셨지만 남동생이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한다. 여중·여고를 다니면서 가끔 실업계 여학생들과 비교하시면서 ‘그 애들보다 예쁘냐? 몸매가 좋냐? 그렇지 않으니 공부라도 잘 해야지?’ 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지만 농담으로 생각할 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 진학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당연히 사범대학을 가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5) 효연

효연이는 할머니, 부모님, 여동생 2명으로, 효연이를 포함하여 총 6명의 대식구 속에서 성장하였다. 특히, 할머니께서 ‘여자가...’이러시면서 기존의 여성성을 강조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게 어디 있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중·고등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을 다녔지만 특별하게 기억나는 남녀에 대한 차등대우나 발언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대학교 지리교육과에 다니는 친구가 교육실습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고 교사라는 직업이 좋을 거 같아서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6) 태연

태연이는 여성으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길 바라는 부모님의 교육 아래 언니와 함께 자라났다. 특히 아버지는 ‘굳이 결혼을 해야 하니?’ 혹은 ‘아이를 낳으면 꼭 너희 성(姓)으로 해라’라고 하실 정도로 딸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시다고 한다. 중학교는 여학교를 다녔지만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남학생의 인원수가 적어서 그랬는지 선생님들께서 남학생들을 더 좋아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과임에도 수학점수가 낮아 교차지원을 모색하던 중 잔디여자 사범대학이 눈에 띄어 오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 중 유일하게 학생회 임원은 아니지만 친한 친구인 씨니와 함께 다니면서 학과행사에 자주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08년 9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8주간의 예비 연구를 바탕으로 2009년 10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주간 총 3차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회차별로 주제를 정하여 <표Ⅲ-2>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이용한 반구조화된 면담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인터뷰시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메모하여 관찰자 의견을 남기도록 하였다.

<표Ⅲ-2> 심층면담 질문 구성표

회차	주제	목적	질문
1	나의 배경	성장 배경 및 연구 참여자의 젠더 인식에 영향을 준 경험적 배경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성원(형제 자매 여부), 중고등학교 형태 ▪ 가정/학교 내에서의 교육(젠더, 직업과의 연결성 속에서 질문) +형제자매/남학생과 비교하여 다르게 대우 받지는 않았는지 +성에 관한 특정한 관점을 주입받지는 않았는지 +남자형제/남학생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기대하는 직업이 따로 있었는지 등 ▪ 사범대학 진학 과정

	나와 여성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젠더 개념과 자신이 생각하는 젠더 개념을 구분지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시간에 배웠던 여성성/남성성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여성성/ 남성성 수업시간에 배웠던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 내가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 +여성으로 자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 젠더 관련 사회적 이슈와 쟁점, 자신의 생각
2	나, 여성 그리고 교사	젠더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남성으로서 교사의 의미지 +교육실습 때 느낀 교직사회(젠더 측면에서) +여성으로서 자신과 교사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젠더 교육을 실시하고 싶은가? 예비교사교육안에서의 젠더 +여성으로서의 주체성, 정체성은 교사교육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 +교사교육 틀에서 젠더는 어떤 의미
3	확인 및 점검	연구 타당도 높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빠졌던 질문이나 확실하지 않았던 내용 다시 점검하기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후 대답한 것인지 확인 연구자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먼저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2008년도 대학원 수업 당시 연구자가 주제로 선정하였던 ‘사범대 여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사범대학 교육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수행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생애사, 여자대학과 사범대학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자료는 미리 수집되어 있었다. 이렇게 미리 확보된 정보를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다시 한 번 체크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2주에 걸쳐 1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때에는 생애사 관련 사항이 맞는지 점검하고 학습했던 젠더 개념과 자신이 인식하고 있

는 젠더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차 인터뷰는 젠더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3차 인터뷰는 그동안 인터뷰에서 빠진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며 분석 및 해석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러한 인터뷰 후에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담한 당일 바로 녹음자료를 전사한 후 인터뷰 당시 썼던 관찰자 의견과 종합하여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일지(journal)에 작성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관련된 다른 학과 조교, 강사, 교사, 교수 등의 이야기들을 기입해 놓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작업과 병행하여, 일반사회 교사교육과정 안에서 예비교사들이 학습하였던 젠더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교육과 교육과정, 수업계획서, 전공도서,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노트필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업계획서를 통해서 인터뷰 중 연구 참여자들이 젠더 개념을 배운 과목으로 언급되지 않은 과목이 발견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것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분석 시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기록한 필기 노트와 수업의 주교재로 사용했던 것을 중심으로 하였고,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젠더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한 후 공통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내용들을 분류하여 유목화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젠더 개념, 젠더 교육, 교사 정체성 등에 관한 생각과 의견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인터뷰 자료를 반복해서 읽음과 동시에 분류표를 만들어 각각의 특징을 도출해내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삼각구도법(triangulation)을 이용하였다. 예비교사의 주관적 관점,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이 지니는 관점 그리고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관점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명한 젠더 개념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3번째 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member checking)을

실시하였고,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수업을 같이 들었던 대학원 동료들의 조언과 지적(peer debriefing)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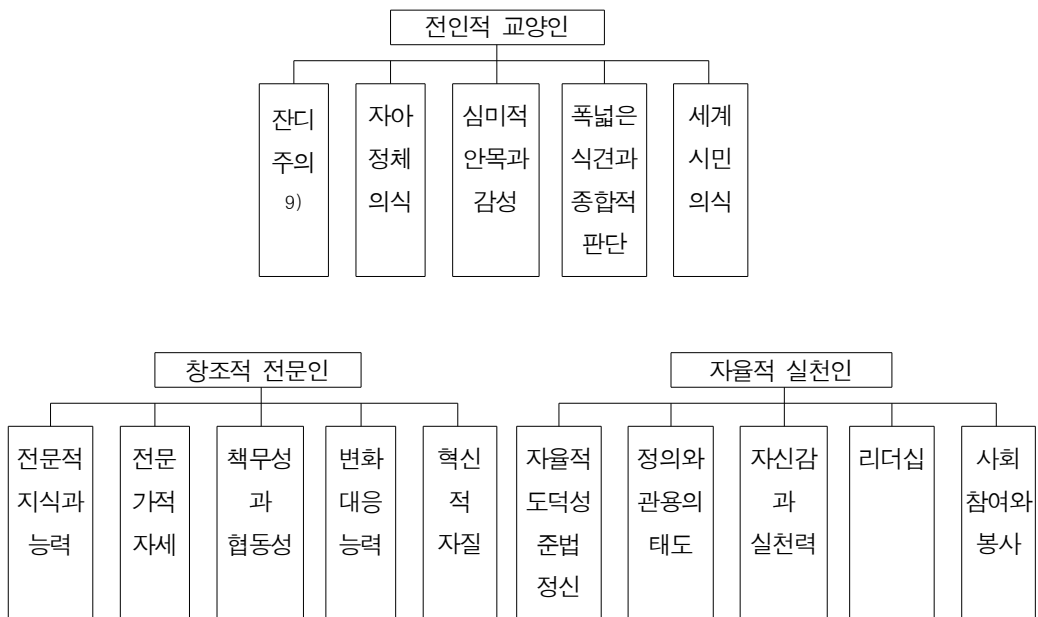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1. 잔디여자 사범대학

1) 잔디여자대학이 추구하는 여성상

잔디여자대학(이하 잔디여대)은 2005년 교육목표 상세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 <표IV-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인적 교양인’, ‘창조적 전문인’, ‘자율적 실천인’ 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세부 목표를 제정⁸⁾하였다.

<표IV-1> 잔디여자대학의 교육목표



8) 2005년도 잔디여자대학교는 ‘잔디여자대학교 교육목표’ 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9) 원래 학교 이름이 들어간 00주의였다.

이러한 목표들은 개인적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을 기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인적 교양인-자아정체의식의 영역 아래에는 젠더와 관련하여 여성의 정체성과 성역할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내면적인 탐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깨달아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가장 적절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바람직한 종교적·정치적 가치와 신념, 그리고 성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¹⁰⁾

최근에는 ‘글로벌 여성 리더’의 육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회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09학년도부터 교양교육원이라는 부속기관을 새로 설립하여 영어, 글쓰기, 사고의 기초, 글로벌문화와 잔디리더십¹¹⁾의 영역에서 반드시 필수 교양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는 경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업특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잔디여대는 교육목표에서부터 구체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의 적극적인 정책과 실천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에서 보는 잔디여대는 이 학교의 상징물인 ‘난초’나 ‘수정’과 같이 가녀리고 순수한 여자대학의 이미지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것과 관련하여 ‘시집을 잘 간다’로 대표되는 현모양처의 여성상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학교에 출강하는 강사선생님들과 교사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0) 앞의 책, p.13

11) 이것 역시 학교 이름이 들어간 ‘글로벌문화와 00리더십’이다.

2) 사범대학의 문화: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잔디여자대학의 사범대학의 경우, 여교사라는 직업적 선호도와 연결되어 매우 인기 있는 단과대학이었으며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입학년도인 2006학년도에는 사회교육과가 그 다음해인 2007학년도에는 윤리교육과가 일반학생 전형과 수능성적우수자 전형 모두 수능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학과였었다.¹²⁾ 그래서 <표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학 장학금 수혜 대상자 역시 사범대학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Ⅳ-2> 2006·2007학년도 단대별 성적우수 장학생 현황

대학(학과수)	2007학년		2006학년 (비율)	
	명 수	비율(%)	명 수	비율(%)
인문과학(8)	23	17.3	12	14.3
사회과학(6)	20	15.0	9	10.7
자연과학(8)	23	17.3	10	11.9
생활과학(3)	22	16.5	7	8.3
간호대학(1)**	4	3.0	.	.
사범대학(5)	24	18.0	25	29.8
미술대학(5)	15	11.3	15	17.9
음악대학(3)	6	4.5	7	8.3
총계	133		84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야간학과 장학생 수 제외¹³⁾

**간호대학은 2007학년도에 새로 신설되었다.

12) 입학관리팀에서 제공된 2007학년도 전형결과 분석 자료를 참고하였는데, 여기에는 2006·2007학년도의 자료가 함께 나와 있었다.

13) 사범대학에는 야간학과가 없기 때문에 야간학과 장학생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꼭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범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범대학생들의 특징은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평가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교육에 출강하는 강사¹⁴⁾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교육과 수업 처음 했을 때 깜짝 놀랐어. 나는 사회학과 수업만 했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을 수 있지? 농담까지도. (웃음) 정말 놀랐다니까. 그리고 시험 답안 쓸 때도 내가 했던 이야기를 다 쓰더라고. 다 잘 써서 성적주기도 힘들었어. 근데 막상 발표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라고 했을 때는 조금 주저하더라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지금은 몇 번 해봐서 적응은 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

2008-09-어느날

이러한 사범대학의 분위기는 타 단과대학과 비교하여도 사뭇 다른데,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교수 배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효연: 그냥 듣고 싶어서 00학과 수업을 듣는데요, 정말 사범대랑은 다르더라고요. 수업시간에 정말 대놓고 자고요, 아니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매니큐어까지 바르는 학생도 있었어요. 말이 되요?

2008-10-17

14) 이 분은 연구자가 200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업을 들었을 당시, 사회교육과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을 동시에 맡아 하였던 사회학 전공의 강사였다. 원활한 학부수업을 위해 당시 조교였던 연구자에게 사회교육과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선생님 또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사회학과와 다른 사회교육과만의 독특한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다.

서현: 사회교육과 애들은 00학과 M교수님 수업 정말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자세히 가르쳐주시는데, 정작 00학과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웃음) 그냥 그 쪽 애들은 수업시간에 잘 듣지도 않고 시험 전에 어디서 나올지 짚어주면 그 때 체크나 하는 정도예요.

2009-05-어느날

또한 현직교사로 있는 연구자의 대학동기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잔디여자 사범대학 출신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다른 학교 출신 교사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학교 일을 열심히 하며, 예의바르고, 선배교사들을 공경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을 나가서도 받는 평가이기도 했다.

교사: 누가 우리 학교 출신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웃음)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 보면 여기 (사범대) 이미지는 좋아.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기간제나 시간강사 구할 때도 선호하는 편이고.

2009-01-어느날

교수: 실습학교 방문했는데 거기 교감선생님께서 우리 학교 애들 너무 이쁘고 착하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던지. (웃음)

2009-04-어느날

즉, 잔디여자 사범대학 출신 교사나 예비교사들의 모습은 ‘수업을 잘한다’ 혹은 ‘학생들을 잘 이끈다’와 같은 능력적인 부분보다는 모두 ‘착하다’ 혹은 ‘성실하다’로 묘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칭찬은 사범대학생들로 하여금 똑똑하고 카리스마있는 교사의 이미지보다는 더욱 예쁘고 참한 여성 교사의 이미지들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위에서 묘사했던 이미지를 가지지 않은 사범대학생에

대한 교수의 반응을 통해서도 사범대학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좀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긴 속눈썹을 붙이고 화장을 진하게 하며 머리를 염색하였던 학부생이 졸업 후 조교를 하고 싶다고 하였을 때 교수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교: 언니, 사실 저 처음에 조교한다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 반대하셔서 중간에 인수인계하다가 그만뒀던 거 알아요? 제가 사실 3학년 되면서부터는 엄청 놀았거든요. 교수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00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2학년 때부터 머리며 화장이며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3학년 되면서부터는 수업시간에 안 보이기 시작했다고. (웃음) 조교를 할 생각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근데 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제가 됐는데요, 화장 진하게 하지 말고, 머리는 너무 노라니까 검은색으로 염색해야 하고, 매니큐어 검은색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교수님도 솔직하게 “내가 처음에는 너를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지금은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근데 처음엔 그랬죠.

2009-03-어느날

종합해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사범대학의 분위기는 가장 먼저 수업 태도에 있어서 다른 단과대학과 차이를 보였다. 높은 출석률과 조용한 수업분위기, 교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성적에 있어서만큼은 경쟁적이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태도는 교육실습생이나 현직교사들에게도 이어져 대부분 착하고 예의바른 모습으로 평가받았으며, 만약 그렇지 않은 학생의 이미지는 수용되기 어려운 배타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였다. 즉, 사범대학의 이미지는 외부평가와 내부관점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일반사회 전공 교육과정 속에 존재하는 ‘젠더’의 특징

일반사회 전공 교육과정¹⁵⁾ 공식문서를 보면 사회교육과 예비교사들을 위해 개설된 전공과목은 총 37개가 있었다. 이 중에서 젠더 관련된 수업은 총 7과목으로, 사회학 관련 수업 5과목, 정치 관련 수업 1과목, 시민성교육 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1학년 때 배우는 ‘사회와 문화’와 ‘사회학 개론’ 수업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 사회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들어야 하는 과목이었고 나머지 과목은 전공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이 과목들은 전부 수강했던 것은 아니었다.

4학년 2학기는 졸업학기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소 학점(9학점)을 듣는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2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 학기 최소 1과목 정도는 젠더 관련 수업¹⁶⁾을 들었던 것이고 주로 환산해 보면 15주 중에서 1주 정도 이것과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3>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젠더’에 관한 내용과 그 특징

분야	학년-학기	수업명	내용	특징
사회학	1-1	사회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의 사회적 구성 ▪성적 소수자의 담론 ▪커밍아웃과 성정체성 담론 ▪학교 교육 안에서의 성 정체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에 관련된 기초개념들을 예와 더불어 자세히 다룸 ▪다른 과목에 비해 동성애와 커밍아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비중 있게 다룸 ▪학교 교육, 예비교사교육 등 교육과 젠더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수업 제공

15) 본 논문에서 분석한 일반사회 교육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입학년도인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16) 하지만 이것은 사회과 전공과목만을 분석한 결과로, 공통사회 연계전공, 교직, 교양에서 배운 젠더 관련 수업까지 포함시킨다면 더 많은 과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젠더 관련 수업을 듣고 있었다.

	1-1	사회학 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 성차별 ▪여성과 일 ▪성폭력과 성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직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다루어짐 ▪여성운동의 역사적 과정 다룸
	1-2	청소년 문화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성문화의 인식 변화 ▪청소년 성문화와 포르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이 자신을 성적(性的)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2-2	현대 사회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인의 욕망구조(외디푸스 콤플렉스) ▪가족주의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성과 연관성이 있는 이론을 다룸
	3-2	가족 사회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개념: 젠더, 성역할, 남성성과 여성성, 양성성 ▪여성의 몸 ▪성역할 이론(생물유전학, 문화인류학, 정신분석학, 사회학습론, 인지발달론, 생애발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역할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룸 ▪양성성 강조
	4-1	사회 문제와 사회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개념 설명 ▪성 불평등(원인, 이론적 관점) ▪가부장적 성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불평등과 그 원인 및 그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중점적으로 다룸
정치 학	3-1	정치 교육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교육의 정의, 핵심 개념, 교수학습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시민교육의 한 영역으로서의 양성평등교육을 다룸 (학생 발표 중심)
시민 성 교육	3-1	시민 사회와 시민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교육의 목표, 내용, 현황, 한계 및 과제 ▪교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자세히 다룸 (학생 발표 중심)

<표 IV-3>에서 제시된 젠더 관련 사회과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첫째, 사회학적 접근으로 젠더에 관한 이론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다. 성에 관한 기본적인 구분(sex, gender, sexuality)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역할, 젠더를 바라보는 사회학적인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 등을 고루 배우고 있었다. 대부분 가치적인 측면은 배제되어 있었으며, 학문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것은 한 과목에서만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에 걸쳐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양성평등교육의 목표부터 그 한계까지 자세히 배웠으며, 방법론적인 면에서 보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구성할지 실제로 수업지도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양성평등교육이 사회과 교육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영역임을 인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은 교수의 강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발표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발표를 들었던 학생들 집단에 속해 있었다.

셋째, 예비교사와 젠더를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와 문화’ 수업에서만 발견되었던 특징으로, 학교교육과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다.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젠더 문제가 소외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교사의 정체성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다.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실제적인 예, 조사 자료 등 근거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젠더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게 돕고 있었다. 더욱이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면서 예비교사들이 교사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회과 교육과정과 강의계획서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해 준 교재 및 필기한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사회과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

은 젠더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관점, 역사적 변천과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 학교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과 더불어 한 과목이었기는 하지만 젠더적인 측면에서 예비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예비 교사들이 실제로 배웠던 젠더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녀들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젠더의 개념은 첫 번째 특징으로 지적했던 이론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젠더 개념에 국한되어 있었다.

윤아: 일반적으로 배우는 (젠더는)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문화의 특성에 맞게 남자는 이러저러한 특성을 가져서 남자가 된거고 여자는 이러저러해서 여자가 된거고, 사실은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데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다가 더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중략... 다만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죠, 여자와 남자를 바라보는 각각의 사회적 인식이 어떠했는데 요즘은 변화되고 있다.

2009-10-05

유리: 배웠던 거요? 젠더는 후천적인 성이고 습득된 성이라는 것,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은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음, 또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도 특별히 구분지어 배우지 않았고요.

2009-10-09

태연: 너무 이론적인 거? 그거죠, 여자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직장으로 나오고 그 때부터 해방운동이 시작됐고, 정치권에서 참정권을 얻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배웠어요.

2009-10-05

요약해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이 배웠다고 인식하고 있는 젠더의 개념은 수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배웠던 젠더의 기본적인 개념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 이외에 양성평등교육이나 교사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교사들이 배웠다고 기억하는 젠더 인식은 다소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일관성을 가지고 젠더 관련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예비교사들이 실제로 배웠던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의 젠더의 내용과 학습했다고 기억하는 젠더의 내용 간에는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젠더의 개념과는 다른 예비교사들이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젠더에 관한 생각은 무엇일까. 학습한 것에 근거하여 비슷한 관점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젠더에 관한 예비교사의 세 가지 내러티브

예비교사들이 배웠다고 인식한 젠더의 개념과 전공과목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젠더 개념의 특징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예비교사들 자신이 가지는 젠더에 관한 주관적인 생각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6명의 예비교사들의 내러티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보다 뚜렷하고 그 특징 선명하게 드러났던 연구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젠더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윤아, 여성에 관한 사회구조적 문제점과 여성의 차별은 눈에 보이지만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한, 그래서 사회라는 거대한 유리의 성에 갇혀 버린 느낌이 드는 씨니, 그리고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이분법적인 구분 없이 젠더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고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유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 윤아의 이야기: I DON'T CARE! 관심 없어요.

(1) 여성성, 남성성 그리고 성역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윤아는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확실히 나누어져 있으며, 이것이 곧 젠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윤아의 관점은 젠더 형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중 생물학 이론과 연결된다.

여성과 남성이 가지는 그 특성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배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못할 거 같아요. 지난번 EBS실험에서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뇌를 비교한 것이 나왔어요. 여아와 남아의 행동패턴이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어렸을 때부터 달랐던 거예요. 투호 있잖아요? 둥그런 통에 화살 넣는, 그거를 남자 아이들이 훨씬 잘하더라고요. 공간을 인지하기 위해 활성화 되는 뇌가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더 잘 발달해서요. 전 이런 쪽이 더 강하게 작용할 거 같아요.

2009-10-05

윤아는 젠더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EBS의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활성화에 되는 뇌의 영역이 어렸을 때부터 다르기 때문에 공간인지능력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윤아는 공간지각능력이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인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에 익숙하고 또 그렇게 부모님들로부터 키워져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윤아는 어떠한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으로 환경보다는 유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윤아는 생물학적인 속성에 근거한 젠더 인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성과 남성성 중 어느 한 쪽에 우위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특징이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바꿀 수 없는 능력의 차이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었다.

여성은 부드럽다 남성은 씩씩하다 이런 것은 어떤 행동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것이 이러한 행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둥그렇고 이런 식으로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남자, 하늘의 파란색은 마치 바다와 같고, 구름의 모양은 코끼리의 코, 토끼의 얼굴처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여자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능력의 차이인거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은유적으로 시를 잘 쓰고 싶다고 습작을 해도 정말 거기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감각이 다른 것처럼 능력의 차이는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잖아요. 행동적인 거는 의식적으로 교정할 수 있지만.

2009-10-05

윤아는 남녀 간의 차이를 공격성이나 의존성과 같은 행동 특성들보다는 그들이 가지는 능력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태어난 남성과 여성은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여성과 남성이 해야 하는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였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자와 남자가 하는 일의 경계가 많이 사라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남자가 활약할 수 있는 부분과 여자가 더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물론 힘센 여자도 있지만 근력량 자체가 타고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분야는 남자들이 진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의료계 같은 경우 정신과나 소아과 같은 상담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거나, 아이들을 대하는 감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외과적인 거나 영상의학과 같은 보고 판독하고 분석하는 거는 확실히 남자들이 잘 하는 거 같아요. 교육도 교실에서 하는 교수행위들은 남자들이 그리고 상담을 하는 생활지도 측면은 여자들이, 아 왜 다 이렇게 분야를 나누게 되지? 세분화해서? (웃음)

2009-10-05

즉, 윤아는 직업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분야를 여성 혹은 남성이 독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았다. 군사 분야와 같이 신체조건에 의하여 반드시 남자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영역을 제외하고, 각 분야마다 세밀하게 나누어 여성이 잘하는 영역과 남성이 잘하는 영역을 구분지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직업의 차이는 생물학적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그동안 여성의 차별로써 존재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젠더에 관한 자신의 입장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보지 못한 듯이 보였다.

연구자: 남자와 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일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평가했잖아요. 생물학적인 차이에 의해 다른 일을 하는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사회는 그걸 차별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윤아: 사회구조적인 거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인 거 같아요. 음.. 잠깐만요, (웃음), 왜 어렵지? (웃음) ...중략...하지만 자신들의 능력 차이로 인해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되는 것은 잘못된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되었다고 보는 시선도 잘못된 거 같아요. 이러한 구분은 각자의 능력에 맞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2009-10-05/10-23

윤아는 여성의 특징 그리고 여성이 가지는 직업을 경시해 왔던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것의 심각성이나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을 두어 여성과 남성의 직업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타당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반대로 이러한 분류를 잘못

된 분류라고 판단하는 것을 고정관념이라며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진출하지 않는 것 또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여성의 문제이지 사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한 수가 다르다는 것이 꼭 그들의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여자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출발하는 명수에서 차이가 났으니까 진출한 수에서 차이가 났지, 처음부터 여자들이 정말 기를 쓰고 정치를 해야겠어 했다면 정치에도 여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사시, 외시 같은 것도 옛날에는 여자들이 많이 보지 않았지만 요즘은 남자들 보는 만큼 여자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합격자들도 거의 반이 여자고. 만약 같은 수가 보는데 합격하는데 있어 여자가 차별대우를 받아 적게 합격한다면 그건 출발선이 다르니까 배려해 줘야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2009-10-05

윤아는 여성의 사회진출은 여성 개인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교직사회에서 여교사들이 부장교사나 교감, 교장직에 많이 없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상위 직급에 여교사들이 없는 것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 여교사들의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환경부장, 상담부장은 여자선생님들이고, (웃음) 연구부장, 교무부장은 딱 남자선생님들이잖아요. 그리고 교직은 여자선생님들은 훨씬 많은데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거의 다 남자잖아요. 그런 거는 차별이기 보다는, 그것도 공부하고 시험보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 때는 점점 바뀌고 있지만 기존 여자 선생님들은 평교사 정도면 안정적인 거고, 거기에 충분히 만족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안하는 거 같아요)

2009-10-19

이렇듯, 윤아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거나 진급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여성 자신의 문제임을 강조하였지만, 여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젠더에 관한 생각이 공고화되게 된 이유로 윤아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차별받아본 적이 없는 경험을 꼽았다.

제가 사실 이런 부분, 그리고 남녀차별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형제라도 있거나 학교라도 남녀공학을 다녔으면 관심이 생겼을 거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요. 그리고 저는 페미니즘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페미니스트들이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같이 가자는 아닌 거 같아서요.

2009-10-05

윤아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으며 차별적인 상황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의 논리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사회를 개혁하려는 그녀들의 적극성에 오히려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요약해 보면, 강의 젠더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을 둔다. 젠더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능력의 차이에 따라 직업, 사회적 역할이 결정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 그리고 승진이 적은 이유를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성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방법은 다를지라도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장선다는 공동의 목표를 지닌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2) 젠더, 교사 그리고 젠더 교육: 왜 필요한 거죠?

윤아는 자신의 능력과 선택에 의해 대부분의 일이 결정되어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젠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젠더는 특정한 교육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혹은 이미 교사가 된 사람에게도 교육적으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여성으로서 교사, 남성으로서의 교사? (...) 와닿는게 없는 거 같아요. 내가 여자이기는 한데, 여자교사로서 무엇을 한다거나 그런 건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젠더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예비교사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제가 교사가 된다고 해도 젠더와 관련된 어떤 수업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또 제가 직접 여성으로서 사회적 차별을 느끼지 않는 한 젠더 교육을 할 필요성이나 동기도 없으니까 안 할 거 같아요.

2009-10-19

자신은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서 교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음에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윤아는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젠더 교육은 필요 없다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교사가 된 후에도 자신은 학생들에게 젠더 교육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윤아는 학교 현장에 나갔을 경우 왜 젠더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자에게 반문하였다. 그녀의 요지는 사회는 여성에게 특별히 차별적이지 않은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었다.

요약해 보면, 윤아는 여성인 자신이 교사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교사로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여성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교실 안에서 젠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2) 씨니의 이야기: 유리의 성에 간혀 버렸어요.

(1) 여성성, 남성성 그리고 성역할: 가부장적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한 것

씨니는 본래 자신이 추구하는 여성성은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것이었지만 아직까지 가부장적 요소가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요구하는 여성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씨니에게 있어 젠더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그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태도, 이미지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씨니: TV 드라마에서 여자들이 남자한테 기대는 거 보면 허우~ 왜 저래 이랬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들을 만나려면 이렇게 조신해야 하고, 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한 거 같아요.

연구자: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의 이미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씨니: 귀엽고, 일 같은 거 (남자보다) 잘 못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약한, 그런 거요.

연구자: 그러니까 현재 본인이 추구하는 여성성은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말하는 건가요?

씨니: 네. 옛날에는 약간 당당해져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들어서 생각이 바뀐 거죠. 저는 약간 제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여성이 가져야 하는 태도, 이미지를 바꾸어야겠다, 사회에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2009-10-09

그리고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남성 역시도 지금의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지 썬이는 사회의 가치관에서 조금 벗어난 듯이 보이는 남성에게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썬이: 책임성, 강인함. 음, 강인하고 여자를 지켜줘야 하는 것. 약간 전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성을 그렇게 많이 접한 기회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아빠보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뭔가 자상해야 하는 거.

연구자: 그럼 만약 조금 여성스러운 남자들을 보면 어떨 거 같아요?

썬이: 실제로 보면 별로일 거 같아요. 티비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스모키화장하고. 저희 언니한테도 이야기 듣는데요. 회사에 어떤 사람이 키티가방 메고 아이라인 하고. 그런데 잘 생겼다고 하는데, 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9-10-09

이처럼 썬이는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지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된다고보다는 사회가 원하는 가치에 부응하는 경향이 크며 여기서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 역시 이러한 틀 안에서 존재하였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정은 분명히 여성의 일이라고 봐요. 음. 의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사회가 여성에게 바라는 부분이고요, 저도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들이 특별히 터치할 영역은 아닌 거 같고요.

2009-11-13

씨니는 젠더에 있어서 ‘사회가 원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그녀가 주변에서 소소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로 강화되었다. 특히, 최근에 교육실습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는 그녀를 완전히 사회 그리고 남성이 요구하는 여성상을 수용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할 수 있었다.

제가 실습을 공학으로 갔는데요, 교생이 남자 5명, 여자 5명이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그 때 경험이 별로 안 좋았던 게 저랑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구가 진짜 딱 봤을 때 얼굴 무척 하얗고 동글동글하고 말랐어요. 완전 남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 뭐 엄청 예쁜 애는 아니었는데 무척 여성적이다 이런 이미지. 근데 그 애랑 저랑 성격이 정말 비슷했는데요. 그 애랑 저랑 이야기를 하면 꼭 저만 폰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어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남자교생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활달한 거 같다고 하고 제 친구한테는 너무 여성적이라고 하고. 솔직히 다 같이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뭔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구나. 그렇더라고요. 속상했어요. 똑같이 하는데 보여지는 게 달라서 그런지, 분명히 똑같이 했거든요. 술 마시러 가고 똑같이 떠들고 웃고. 근데 그 애는 대하기 어려워하고 저는 막대하고. 그 땐 좀 그랬어요.

2009-10-09

씨니는 항상 같이 다니고 똑같이 행동하는 친구와 자신을 남자교생들이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남성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달은 것이었다. 때때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남성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또 포기되어지고 말았다.

교생들 중에 굉장히 똑부러지고 말 잘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교생들은 부담스러웠어요. 그 언니가 시원시원하다고 그래야 하나? 여장부 같은 스타일? 그래서 봤을 때는 언니 멋있다 생각했었는데, 술마실 때 그 언니가 남자친구 있다고 하니까 남자교생이 저 분이랑 사귀는 남자는 누굴까 참 궁금하다, 이랬는데 약간 비꼰다고 그래야 하나? 저런 이미지를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2009-10-09

이러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써니는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는 충분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굉장히 현실적이며 사회를 살아가는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어야겠지만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어떤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써니: 사회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여자들도 분명히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성들한테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한거 같아요. 여자들이 나서기를 바라지만 진짜 나서게 되면 부담스러워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고치려고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페미니스트는 절대 아니에요.

연구자: 페미니스트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써니: 현재 상태가 불평등하니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연구자: 사회가 불평등한 거는 알고 있지만, 고치려고 노력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데도요?

써니: 네. 전 굳이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경험상 특별히 피부에 와닿도록 남녀차별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성격상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개선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2009-10-09

즉, 씨니는 처음에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이며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를 꿈꿔왔지만, 사회의 현실을 알아가면서부터 남성 중심의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느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타협으로 인하여 그녀는 문제가 있는 현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2) 젠더, 교사 그리고 젠더 교육

: 필요 하겠지만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겠어요.

윤아와 마찬가지로 씨니도 여성으로서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립적인 교사라면 모를까 이러한 질문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세 번째 면담을 할 때 씨니가 생각한 여성으로서의 교사는 사회의 불평등한 모습을 알려주는 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여성으로서 교사가 된다는 것은 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만 같아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 이런 거를 깨우쳐 줘야겠다, 선각자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2009-10-23

하지만 이러한 여성으로서의 교사 모습이 직접적으로 씨니 자신에게 투영되어 있지는 않았다. 자신이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여성에게 있어서 불공평한 사회의 모습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그런 점을 일깨워 줘야 하겠지만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 같지는 않아요. 실습가서 보고 온 학교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학교라는 곳은 조심해야 하는 곳, 말조심해야 하는 곳, 내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발언을 하면 부담스러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2009-10-23

또한 씨니는 사회가 생각하는 기존의 여성 이미지를 바꾸는 방향으로의 젠더 교육의 내용이 구성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바꾸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세상은 불평등하다, 그러한 사회에서 형성된 여성의 이런 생각은 바꾸어야 한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힘들 거 같아요.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이 있는 것은 다 알고는 있지만 함부로 말로 하기 힘든 거? 학교 밖은 몰라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거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해야 하나. 누가 꼭 하라고 시킨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굳이 일부러 나서서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2009-10-23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씨니의 생각은 교사가 되어서도 적극적으로 젠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물론, 젠더 교육의 실천 여부가 매우 소극적이기는 하였지만 어떤 젠더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운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것은 교사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젠더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내용과는 다르게, 매우 개방적인 수준까지 배웠으면 좋겠다는 점이였다.

생각해 본적은 없지만, 음 (...) 필요는 할 거 같긴 해요. (...) 사범대 안에서? 저는 오히려 여성과 남성 이런 거 보다는 여기서 배제된 부류,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 등과 같은 것을 배워야 할 거 같아요. 만약 배워야 한다면 더 소수의 사람에 관해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알고 있으니까. 책에 써있는데, 사회과 교육에서도 써있는 맨날 하는 이야기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뻔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실질적이지 않다면 뻔한 이야기를 똑같이 되풀이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2009-10-23

씨니는 교사교육과정 안에서 젠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항상 들어왔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범주에 속하지 못한 소수의 성에 대한 정보를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자신이 찾아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을 수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찾을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 씨니는 가부장적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바꾸는 방향으로 교실 안에서의 젠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여성과 남성을 벗어난 제3의 성에 대해서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다루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생각으로만 그칠 뿐 자신이 직접 이러한 수업을 수강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그녀는 현 체제의 변화보다는 유지 그리고 그 속에서의 안락한 삶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유리의 이야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죠.

(1) 여성성, 남성성 그리고 성역할: 개인 고유의 특징이 발현된 것

유리는 여성성 혹은 남성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듯이 거의 모든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해주었다. 오히려 연구자가 그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그 의미를 되풀이해서 질문하고 확인하였다. 유리에게 있어서 여성성과 남성성은 기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한 쪽 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한다면 구분을 지어 이야기하겠지만 반드시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만약 반드시 구분해서 여성성이 뭐고 남성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공감, 케어는 여성성에 힘, 권력추구는 남성성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꼭 한 쪽에만 속해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성이라고 불리는 특징들이나 남성성이라고 불리는 특징들은 서로 바뀔 수도 있죠. 좀 더 힘센 여자, 부드러운 남자처럼요. 저는 그냥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봐요.

2009-11-13

유리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질문에 기존의 여성과 남성에 관한 속성들을 떠올리기는 하였지만 여기서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하위 범주들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흔히 주변에서 말하는 남성성의 범주에 속하는 특징들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 또한 여성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일 뿐이라고 하였다.

저는 주변에서 고집도 세고, 자기주장도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여성성은 아니잖아요. 남성성에 가깝지. 하지만 전 이걸 또 남성성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제 특징이지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인 거 같아요. 말을 잘못하고 소심하고 목소리가 작은 남자애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보고 여자애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건 그 사람 고유의 특징인 거죠.

2009-10-09

우리는 사회에서 정해놓은 젠더의 특징들은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그 ‘개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젠더 특징이란 한 개인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 산의 생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진 역할을 크게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특정하게 따로 구분되어지는 역할을 없죠. 특별히 구분지어서 배우지 않은 것처럼요.

2009-11-13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젠더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신이 어떠한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를 보충적으로 해주었다.

젠더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는 젠더라는 부분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남동생이나 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를 더 믿고 의지하시니까 여성으로서의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잖아요. 이럴 때 젠더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만약에 직장이나 학교처럼 남녀불평등한 공간에 있다면 젠더는 큰 부분

으로 작용할 거 같아요. 여자에게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저의 여성이라는 부분을 더 크게 인식할 거 같아요.

2009-11-13

유리는 젠더가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도 본인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 그리고 학교도 남녀불평등한 곳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는 달리 만약 자신이 여성으로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구조의 문제점과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맞는데요, 구조를 해체하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을 거 같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떠한 차별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제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기 세다라고 할지 몰라도 전 거기에 굴해서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순종적인 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요, 이거는 아니더라도 제 의지를 굳힌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설득한다거나 그런 수준에서 개선하려고 할 거 같아요. 개인적인 수준에서 할 거 같아요.

2009-10-09

그 해결방안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처럼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전복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여성 존중과 차별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은 페미니스트이지만 남성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페미니스트이기는 하지만 급진적이고 과격한 페미니스트는 아니에요. 여성을 존중하고 차별이 있다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을 극복의 대상 그리고 이겨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전 꼭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 남성이 힘이 세야하고 강해야한다는 것으로 차별받고 있다면 이러한 남성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2009-10-09

종합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젠더는 분명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점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꼭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징들은 상호 교환 가능한 것들이며 그래서 여성과 남성만이 가지는 각각의 특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한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인식위에, 우리는 만약 자신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차별받게 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2) 젠더, 교사 그리고 젠더 교육: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해요!

젠더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함께 연결 지어 생각하던 우리도 여성과 교사를 연결하는 것에서는 조금 어려워하였다. 여성인 자신이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여교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연구자: 여성으로서 내가 교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리: 글썽요. 여성으로서의 교사? 특별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남성으로서의 교사 여성으로서의 교사가 구분되어지는 건가요? 근데 꼭

여성으로서의 교사라고 한다면 뭔가 사명감이 더 생겨서 여학생들에게 어떤 역할모델이 되어주어야 할 거 같은데요.

연구자: 그것이 여성인 자신이 교사가 된다면 추구하는 모습인가요?

유리: 제 모습이요? 저랑 관계된 질문인가요? 근데 질문이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데요? 앞에 여성이라는게 강조되어서.. 특별히 저랑 연결시켜보지는 않게 되는데...

2009-10-23

여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여성으로서 교사인 나에 대한 질문은 유리에게도 낯선 듯이 보였다. 하지만 유리가 교사가 되어 하고 싶은 젠더 교육이란 다른 예비 교사들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었다.

(수업시간에는) 사회문화 시간에 젠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 같아요. 따로 다른 부분에서 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상담을 하러 오게 되면 그 때 좀 더 이야기해 줄 거 같아요. 전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만약에 목소리가 작고 소심한 학생이 상담 받으러 왔다면 그 아이에게 더 활발하게 해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자신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바꿔봐라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 학생이 가진 그 고유한 특징을 인정해주고 장점으로 발현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남성과 여성에 맞는 정체성을 주입시켜주는 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다르니까 그 모습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할 거 같아요.

2009-10-23

유리의 젠더를 바라보는 관점이 개인 고유의 특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그녀의 젠더 교육관도 이것과 비슷했다. 사회가 올바르다고

말하는 젠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한 젠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회가 원하는 젠더 특성이 아니더라도 교사로서 굳이 바꾸어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회가 알려주는 젠더 특징은 어려서부터 내재화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식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실 불평등한 상황이라는 것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혹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한다면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젠더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젠더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일깨워 주는 거죠. 모르면 평생 모르니까 알려주도록 하는 거. 젠더 교육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해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사가 된다면 이렇게 인식 개선 교육을 할 거고요. 교사교육과정 안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2009-10-23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여성성을 가진 남성, 남성성을 가진 여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자는 것이었다. ‘모르면 평생 모른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그녀의 젠더 교육관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요약해 하면, 우리는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젠더 교육과 자신이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해 줄 젠더 교육은 모두 일관적으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젠더적 특징을 있는 그대로 발현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온 젠더 차별적인 고정관념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형성해주는 것이었다.

4) 결론

여성성, 남성성 그리고 성역할을 중심으로 알아 본 젠더 개념과 젠더 교육에 관한 세 명의 예비교사들의 내러티브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윤아의 경우, 여성성과 남성성은 생물학적인 구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후천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역할 또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능력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본다. 그래서 윤아에게는 젠더 개념과 이것에 관련된 교육은 그녀에게 흥미 없는 관심 영역 밖의 문제였다.

써니의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생각은 모두 사회적 가치에 순응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벗어나기란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보았으며, 사회구조적 문제점 등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회의를 보였다. 그래서 그녀가 취하는 젠더 교육 역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유리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분하여 생각해 보기보다는 한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성역할 역시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에 맞게 그녀가 추구하는 젠더 교육 역시 그러한 고유한 특징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에 의해 형성된 젠더 차별적인 고정관념들을 바로잡는 인식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살펴보았듯이, 젠더 개념에 관한 세 명의 예비 교사들의 입장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젠더 교육에 관한 입장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구체적인 젠더 교육관을 가진 유리를 제외하고 윤아와 써니의 젠더 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교육 실습을 통해 이러한 젠더

교육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한 번쯤 이것과 관련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 보았다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젠더 교육을 실시할지 조금은 현실감 있게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앞으로 교사가 된다면...’ 혹은 ‘앞으로 교사교육과정에서 젠더 교육을 받게 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점 속에서도 예비 교사들의 서로 다른 젠더에 관한 이야기는 사회과교육과 교사교육 그리고 학교교육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음 장을 통해 예비 교사들의 서로 다른 내러티브 속에 녹아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V. 예비교사들의 젠더 인식 속에 존재하는 의미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잔디여자 사범대학의 분위기, 일반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연구 참여자들의 젠더 인식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통해서 젠더에 관한 예비교사 교육과정과 예비교사 인식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하며 예비교사들 간의 젠더 인식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젠더 인식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젠더에 관한 예비교사 교육과정과 예비교사의 이해방식 사이의 괴리는 왜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는 학교교육과 교사교육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의미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선택적 학습으로 인한 젠더 개념과 정체성 형성 간의 괴리

잔디여대는 공식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으며, 일반사회과 예비교사 교육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는 젠더 개념과 그것을 보는 관점들은 이론적으로 다양하였다. 젠더 교육 측면에서 보면 양성평등교육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한 과목이기는 하였지만 젠더와 교사교육을 연결 지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예비 교사들이 학습하였다고 인식한 젠더 개념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요약된 의미 하나만을 말할 정도로, 실제로 배운 것보다 훨씬 축소·압축된 의미였다.

이와 같은, 젠더에 관한 예비교사 교육과정과 예비교사 인식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가 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비교사들에게 있어 젠더라는 개념은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으로,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수많은 개념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아닌 부차적인 개념이었다.

써니: 젠더라는 게요 세계화라든지 환경과 같은 분야처럼요 교과과정에서 뒷부분에 나오니까 특별히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2009-11-13

태연: 우선 교사가 되는 것이 원체 힘드니까요. 임용시험에는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요.

2009-10-26

서현: 아오, 근데요 사실 젠더란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요. 임용시험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09-10-23

법·정치 영역에서 다루는 기본권, 미시경제에서 다루는 수요나 공급, 사회학에서 다루는 지위나 사회화 등의 경우는 주관적 가치판단이 허용되지 않는 개념들로 임용시험문제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젠더에 관한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정의되거나 몇 가지 이론으로 정리되지 않는 영역으로, 임용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으며 출제되기도 힘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구분되면서 예비교사들은 젠더에 관한 영역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비교사들은 임용시험의 출제 가능성 여부에 따라 일반사회과 교육과정 속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중요한 개념과 그렇지 않은 개념으로 분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비교사들이 젠더 개념을 다양하게 배우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젠더에 관한 기초적 정의 그 이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임용시험에 맞춰진 선택적 학습은 학습한 젠더와 인식한

젠더 사이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사범대학에서 배운 젠더 개념은 학습해야 할 객관적인 대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예비교사들에게 있어 젠더라는 개념은 그들 자신과의 연관성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 정체성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았을 때, 젠더 정체성은 분명히 그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나는 여자인가 혹은 남자인가?’와 같은 질문을 넘어 ‘나의 여성성 혹은 남성성은 무엇인가?’, ‘여성으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젠더와 관련하여 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 내 존재하는 성불평등한 문제를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과 같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젠더 정체성은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젠더 인식에서는 젠더 개념과 정체성 형성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젠더와 정체성 형성 간의 괴리는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통찰과 반성을 통한 교사 정체성 형성 및 전문성 함양이라는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젠더 개념을 통한 자아 정체성 및 교사 정체성 형성 그리고 교사 전문성 확보는 동일선상에서 모두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해 보면,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형태로 젠더에 관한 정의, 형성 이론, 관점 등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에 맞춰진 선택적 학습으로 인하여 학습한 젠더 개념과 인식한 젠더 개념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젠더 개념과 자신에 관한 연결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교사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젠더 감수성이 낮은 이유: 종교적 신념과 젠더 교육의 부재

‘젠더 감수성이 높다’라는 것의 기준을 젠더에 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며, 젠더 불평등한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젠더 감수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예비교사들이 가지는 종교적 신념과 젠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젠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종교적 신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와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보다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윤아: 트랜스젠더나 동성애 (...) 배척하지는 않아요. 배척은 하지 않지만 이해는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이게 종교적인 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요,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트랜스젠더나 동성애 같은 경우는 신의 영역이라는 부분을 터치하는 거라 좀 부정적이에요.

2009-10-05

태연: 이번에 트랜스젠더인데 슈퍼모델 본선에 진출한 거 보면서 세상 참 말세구나. (웃음) 저는 그게 종교적인 역할이 큰 거 같아요. 성경말씀 부정하는게 무서워요. 근데 여기서(대학교) 배우는 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다 이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냥 무서워요 신앙적으로.

2009-10-05

하지만 같은 종교라고 할지라도 효연이와 유리의 경우는 이렇게 완고한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정도는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종교라는 요소가 예비교사의 젠더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준거 틀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이 남녀차별적인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비교사들은 젠더에 관한 이론을 배운 후 이것을 현실상황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통해 더 많은 실제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특히 서현이와 효연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

서현: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 상황을 알려주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
중략... 그리고 만약에 젠더 교육을 한다면 이건 사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도 해야 할 거 같아요.

2009-10-23

효연: 젠더 차별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하는, 이런 거는 필요할 거 같아요. 특히 교사가 되려는 사람한테는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적인 발언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려주고, 이런 거는 없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2009-10-19

학교나 직장 등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남녀차별적인 상황인지 찾아보기,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대중매체에서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젠더 차별적인 개인적 경험을 글로 써보고 공유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젠더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예비교사들은 젠더 감수성이 풍부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종교적 신념과 이론과 현실을 연결해서 보는 젠더 교육의 부재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젠더 감수성이 높지 않은 예비교사들이 교사

가 될 경우 학생들 역시도 젠더에 관한 문제에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젠더 문제에 민감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젠더 정체성과 분리된 교사교육과정

예비교사들은 ‘여성’으로서 ‘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낮설어하였고, 여성으로서의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은 ‘나와 교사’의 관계와 ‘여성인 나와 교사’의 관계를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⁷⁾ 다시 말해, 예비교사들은 여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과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하나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예비교사 개인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범대 교사교육과정이 지니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 교육과정은 예비교사들에게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젠더 개념을 통해 교사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우연에 의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¹⁸⁾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젠더와 교사정체성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비교사들이 깨달아 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워 하던 예비교사들도 인터뷰를 통

17)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어떠한 교사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교사상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었지만, ‘여성인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왜 앞에 여성이라는 것이 붙어야 되는 건지, 여성인 교사로서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는 건지 등을 연구자에게 되물곤 하였다. 여성인 자신이 교사가 된다는 것은 자신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 교사의 의미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18) 예비교사들에게 있어 여성으로서 교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우연적으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바로 여성이면서 교사생활을 하는 강사에게 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을 받으면서였다. 특히, 유리와 태연이의 경우 이 분을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여성이면서 교사로서의 삶이 때로는 충돌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 등을 배웠다고 하였다. 즉,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여성(젠더)과 교사라는 부분을 어렵פות이 연결 지어 보고 있는 것이었다.

해 여성으로서 교사가 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체성 탐구로써의 교사교육이 가져오는 결과 역시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써니: 그런데 정말 여성으로서의 교사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하기는 하는데.

2009-10-23

유리: 교사 정체성과 젠더는 계속 부딪치는 문제일 거 같아요. 저는 여성이니까 제가 교사를 하게 되면 육아나 출산문제에서 그런 게 계속 발생하겠죠? 내가 여자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역할갈등 같은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사례를 통해 고민해 보는 거 좋을 거 같아요.

2009-10-23

태연: 사실 여성인 내가 교사가 된다는 부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하지만 무척 혼란스러울 거 같아요. 여자들 나중에 학교 가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흔들리는 자신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중략... 자기생활이랑 학교생활이랑 부딪칠 때 갈등하는 거 그게 많을 거 같아요. 여성으로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필요할 거 같아요.

2009-10-19

또한, 4주 동안의 교육실습 체험은 예비교사들이 젠더 정체성과 젠더 불평등 그리고 교사 정체성의 상호 연관성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윤아를 제외한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의 경험을 통해서 남녀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감지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남자를 선호하는 대표 교생의 선정 문제 그리고 교장, 교감 및 부장교사의 성비(性比) 등에서 남성 중심적인 교무실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¹⁹⁾

19) 윤아의 경우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교감, 교장, 그리고 특정 부장교사에 남자가 많이 있음을 교육실습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

요약해 보면, 예비교사들은 독립적인 의미로서의 교사가 아닌 나와 관련된, 즉 여성으로서의 교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렇게 젠더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것은 정체성 탐구로서의 교사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교사들이 조금씩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으로서 교사가 된다는 점을 교사교육과정 안에서 이해하게 될 때, 교사로서의 직업적 성장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라 이러한 보직에 진출하지 않는 여성들의 선택이라고 보았다.

VI.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잔디여자 사범대학의 예비교사들이 학습한 젠더 개념과 그들의 고유한 젠더 인식 그리고 젠더 교육관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의 젠더에 관한 인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에 존재하는 몇 가지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존 젠더에 관한 이론이 가지는 범주적 한계

젠더에 관한 기존의 이론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예비교사들의 젠더에 관한 인식은 미시적 수준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예비교사들의 젠더에 관한 인식의 정도나 내용을 기존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범주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 여성의 계급의식의 경우 과거 자신이 속했던 친정의 계급기반과 미래에 자녀들이 갖기를 바라는 계급지위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계급론의 한계를 지적한 Abelmann(199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아무리 생물학적인 속성에 의해 젠더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젠더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윤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전폭적으로 순응하는 씨니, 그리고 개인의 특징을 강조하여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이론을 따르는 듯 보이나 개인의 주체성에 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유리의 젠더에 관한 인식은 기존의 이론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교사들의 젠더에 관한 다양한 인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주관적(inter-subjective)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젠더 인식은 개인의 생애사, 종교적 신념,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순응 및 타협, 그리고 교원선발체제와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예비교사들의 젠더 인식은 사회·문화적인 부분들을 그 배경으로 함으로써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미시적 수준의 연구들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추상적 수준의 이론들은 더욱 더 구체성을 띠며 이론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2. 교실 수업의 핵심 동인으로서 교사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

교실수업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서 교사의 역할, 즉 교사의 조율적 역할 (teacher gatekeeping)이 교실 안에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예: 박윤경, 2004; 조대훈, 2004; Johnson, 1994, Thornton, 1991).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교사가 어떠한 젠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교실 안 젠더 교육의 형태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학생들의 젠더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만약 부적합한 젠더 인식을 가지고 있던 예비교사가 교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듯, 서로 다른 젠더 인식을 보여준 예비 교사들은 그에 따라 또 서로 다른 젠더 교육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젠더 차별적인 경우인지에 관한 인식, 즉 젠더 감수성이 낮다고 볼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예비교사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설명할 수 있으나, 실제로 경험은 했지만 그것이 차별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즉, 대학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부터 제대로 된 젠더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사가 현장에 진출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교사도 모르게 무심코 말하는 젠더 차별적인 발언들이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학생들 역시 젠더 감수성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교실 안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사의 중요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교사에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이미 계획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설계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박순경, 2003). 교실 안에서 교사는 더 이상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의존하여 수업을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젠더 개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문화 과목에서만 젠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할지라도 교실의 상황에 따라 젠더 관련 이슈를 가지고 젠더 교육을 간접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체성 탐구로서의 교사교육 도입

교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한 인간의 성장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역시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어느 한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가 되기 전인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예비교사들은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젠더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교사교육 안에 파고들어 형성되는 것이 곧 정체성 탐구로서의 교사교육이 되는 것이며, 이 때에 비로소 예비교사들의 지식적 수준 발달과 더불어 인격적 성숙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교사들은 ‘자신은 누구인가’,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자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어떠한 교사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각기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 지어 그 답을 구할 때, 교사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바로 정체성 탐구로서의 교사교육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장한 교사는 그 전문성 측면에서도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유솔아, 2006).

교사 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 교사의 주체적 역할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것은 한 주 정도의 수업 혹은 이론적 강의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체성 형성 자체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젠더 정체성과 교사 정체성 역시 지속적인 노력과 반성 그리고 탐구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과 성찰은 교사의 내면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더불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실 안에서의 교육과정 설계자로 탈바꿈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4. 제언

본 연구는 사회과 예비교사들의 젠더 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의 서로 다른 젠더 인식을 드러내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후속연구를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교사교육 기관에서의 젠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자사범대학의 예비교사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는데, 남녀공

학사범대학이나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예비교사들, 그리고 교육대학원이나 교원연수를 통해 교육을 받는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장되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좀 더 구체적으로 현직 교사들이 가지는 젠더 개념은 무엇이고 이것이 젠더 관련 수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교사가 된다면’이라는 가정 속에서 젠더 교육의 모습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검증은 되었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젠더와의 연관성 속에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본다면 교사교육과정 변화에 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수업모형 개발과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젠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교육과 교사교육의 필요성만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현을 보장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수업모형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예비교사 그리고 현직교사들이 젠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차섭(2004). “사범대 문제의 대안은 무엇인가”. 『창작과 비평』, 126호.
pp. 81-94
- 곽삼근(2002). “교육학에서의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방법의 틀”. 『교육인류학 연구』, 제5권 1호, pp.1-20.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영천 편저(2006). 『After Tyler: 교육과정 이론화 1970-2000』. 서울: 문음사. pp.441-489.
- 김유정·윤지현(2005). “초등 예비교사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교육연구』, 제8권, pp.95-109.
- 김선정(2005). 양성평등 교원연수 프로그램 분석: 비판적 양성평등 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류생호(2002). 『양성평등교육의 이해』.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
- 민무숙(2002). “한국교육정책에서 젠더 문제의 위치와 과제”. 『교육사회학 연구』, 제12권 2호, pp.81-97.
- 박순경(2003). “교육과정 탐구 주체로서의 교사 전문성 논의에 대한 대안적 관점”. 『교육학 연구』. 제41권 2호, pp.75-92.
- 박윤경(2004). “사회과 교육과정 실행기체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제43권 1호, pp. 35-59.
- 유솔아(2006). “교사 반성에 대한 관점 정립을 위한 재고: 교육과정 실행 주체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24권 3호, pp.173-197.
- 유현옥(2004). 『페미니즘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 윤명옥(2002).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양성평등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석

- 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용숙·김영천 편(2002).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pp.3-134.
- 정미라(2008). “예비유아교사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54권, pp.1-21.
- 정채기(2006). “젠더연구의 교육과정화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논단』, 제5권 1호, pp.117-141.
- 정혜숙·양애경·김홍숙(199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교수·학습과정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조경원(2006), “젠더와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연구논집』, 제17권, pp.29-62.
- 조대훈(2004). “교수행위를 바라보는 세 가지 이론적 모델의 고찰”. 『시민교육연구』, 제36권 1호, pp. 231-260.
- 최재성·강성혜(1995). 『학교교육 현장에 나타난 성차별주의』,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최혜림(2006).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여성성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2005). 『사회학』. 서울: 한울. pp.327-358.
- 한혜정(2004). “여성학적 관점에 의거한 교사교육의 발전방향 모색”. 『교육학연구』, 제42권 2호, pp.113-132.
- 허창수(2004). “한국 교육에서의 젠더 평등과 공평”.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2호, pp.219-246.
- _____ (2006). “성인지(gender-sensitive) 관점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양성제도에 대한 제언”. 『한국교육과정학회』, 제24권 4호, pp.55-81.
- Bullough,R.V.,Jr & Gitlin, A(1995). *Becoming a Student of Teaching*.

New York & London(pp.3-21)

Butler, J. 조현준 역(2008). 『젠더 트러블』. 서울: 문학동네.(원전은 1990년 출판)

Christian von Braun & Fnge Stephan.탁선미 등 역(2002). 『젠더 연구: 성 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서울: 나남출판. pp.19-146.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Feyza, T.E(2009). A Course on Gender Equity in Education: Does it Affect Gender Role Attitudes of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25, pp.409-414.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Johnson, V. G(1994). Student Teachers' Conceptions of Classroom Contro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8(2), pp.109-117.

Karen Z. & David S.(2002). Gender Bias in Teacher Education Text: New(and Old) Lesson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3(2), pp.168-180

Ottesen, E(2007). Reflection in Teacher Education, *Reflective Practice*, 8(1), pp.31-46.

Spradley, J. P.(2006). 참여관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1980년 출판)

Tavris, C. 히스테리아 역(1999).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서울: 또 하나의 문화.

Thornton, S. J.(1991). Teacher as Curricular-instructional Gatekeeper in Social Studies, In J. P. Shaver (Eds.), *Handbook of Research in*

Social Studies, Macmillan, New York (pp. 237-248).

Wood, J. T. 한의정 역(2006). 『젠더에 갇힌 삶』.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21-81.

*참고한 홈페이지 주소

<http://kyosu.net>

<http://www.ncate.org>

<http://www.sswupress.co.kr>

<http://www.womennews.co.kr>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Social Studies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f Gender

- A Certain Female College of Educ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Moonsun Choi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Gender, which has great meaning for everyon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variables and has an effect on identity. Perception of gender, to preservice teachers, is related to doing about what kind of gender education and establishing teacher identify.

This paper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about gender in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he meaning of gender perceived by female social studies preservice teachers and then reconstructs the direction of teacher education. To achieve these aim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1. What do preservice teachers learn about gender in social studies teacher education?
2. What does gender which social studies preservice teachers recognize mean?
3. What d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tudies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f gender mean for teacher education?

This paper conducts a in-depth interview and data was collected over three interviews. The participants selected are six female students who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in a women's university. Their perception of gender classifies three different types: 'The lack of interested in gender', 'Adjustment to social values of gender' and 'Reflection of their personalit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he problem of weak gender sensitivity, the importance of a teacher's role in the classroom. In other words, if preservice teachers have weak gender sensitivity, the gender education that teachers will conduct in the future will have a problem too. Gender education is determined by the perception of gender a teacher holds and thus the teacher's perception will have a massi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students's gender awareness.

Also, this study can introduce the theme of teacher education as the exploration of teacher identity. When questions such as 'Who am I as a male or female?' and 'What kind of teacher will I be?' are formed by the exploration of teacher identity and are integrated and answered, preservice teachers will then be able to transition to 'good teachers'.

<부록 1> 인터뷰 내용

■ Interviewer: 연구자(I) / Interviewee: 윤아(Y)
 ■ 날짜: 2009년 10월 05일
 ■ 시간: 오후 3시 ~ 4시 10분
 ■ 장소: 학교 운동장 벤치

주제: 연구 참여자의 젠더 인식(학습한 것 vs 자신의 생각)

I	그럼 사범대학교 수업받을 때 성, 젠더 관련해서 수업받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Y	음, 1학년 때 사회와 문화 거기서 처음 만나는 문화 인류학, 거기 보면은 여성성, 남성성 해갖고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랑 현지 조사 한거 나오잖아요. 그런거. (웃음) 기억이 잘 안나는데.
I	그럼 사회와문화 시간에는 배웠던 거 특별히 기억 남는 거 있어요?
Y	아, 그런게, 뻘한대?(웃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인거 같은데 아닌 거 같기도 하고.
I	어떤 면에서요?
Y	근데 그거 저번에 ebs에서 실험나왔는데, 남자 아동들 대상으로 남자와 여자 뇌비교한 거 나왔는데, 그게 아예 애들 행동 패턴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아예 애들이 어릴 때부터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였지? 아, 그거 있잖아요, 투호?라고 그러나 동그런 통안에 화살 넣는거 그거는 남자애들이 훨씬 잘하드라구요, 공간을 인지하는 거 자체가 뇌활성화되는 거 자체가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I	아, 그러니까 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Y	예. (...) 음... (웃음) 많이 들었던 거는 여자랑 남자랑 그 특성같은 게 고정되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자연적인 거를 무시못할 거 같아요.
I	본인이 생각하는 여성다움은 혹은 남성다움은 뭐예요?
Y	아니요, 그런 행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능력적인 측면,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이런 거죠, 하늘을 보고 느낀거를 표현해 보라할 때 단순히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떠있는데 구름 모양은 어떻다 이거는 남자들이 잘 기술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표현을 하는 거는 무슨 빛깔로 파랗고 마치 구름은 무슨 무슨 모양같다는 표현을 하는 거는 여자들이 더, 그런 식으로 능력적인 거지, 행동은 그다지. 행동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에 관한 차이는 그게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능력을 써먹으면서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좁혀진다고는 해도 어쩔 수 없이 남자가 활약할 수 있는 부분과 여자가

	<p>더 많이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행동적인 면은.. 음.. 능력적인 거는 생물학적인 거에서 차이가 오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은유적으로 시를 잘 쓰고 싶다고 습작을 해도 정말 거기에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감각이 다른 거처럼 능력의 차이는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럴 수 없지만, 행동적인 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거는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p>
I	<p>남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회를 봤을 때 남자는 흔히 말해 공적인 영역에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여자도 더 발휘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 때문에 나뉘어져 있다면 그건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p>
Y	<p>사회구조적인 거에 의해서 나뉘어진거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인 거 같애요, 하지만 자신들의 능력 차이로 인해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되는 것은 잘못된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되었다고 보는 시선도 잘못된 거 같아요. 공적인 거라고 하면 뭐 대표적인 거는 정치, 경제, 뭐, 의료계같은 것도 남자는 의사 여자는 간호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리가 어쩔든 되어있는 거잖아요. 가사, 교육 이런 거는 여자고, 그런데 그거는 능력에 의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거에 의한 차이를 능력의 차이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정말 사회구조적인 거로 잘못된거죠, 정치라는게 남자들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 잠깐만요, 그게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웃음), 왜 어렵지? (웃음) 아! 그런 거 같애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자와 남자가 하는 일의 경계가 많이 사라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남자가 활약할 수 있는 부분과 여자가 더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물론 힘센 여자도 있지만 근력량 자체가 타고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분야는 남자들이 진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의료계 같은 경우 정신과나 소아과 같은 상담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거나, 아이들을 대하는 감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외과적인 거나 영상의학과 같은 보고 판독하고 분석하는 거는 확실히 남자들이 잘 하는 거 같아요. 교육도 교실에서 하는 교수행위들은 남자들이 그리고 상담을 하는 생활지도 측면은 여자들이, 아 왜 다 이렇게 분야를 나누게 되지? 세분화해서? (웃음)</p>
I	<p>그럼, 사범대 수업시간에 배워왔던 거에서 보면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은 어떤 거였어요?</p>
Y	<p>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음.. (...) 사범대 교육에서 여자는 어떠해야 한다, 여자 선생님은 어떠해야 한다는 적은 없는거 같고요, 근데 다만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죠, 여자와 남자를 바라보는 각각의 사회적 인식이 어떠했는데 요즘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도 남자랑 여자랑, 여자들도 일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사분담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동등하고.</p>
I	<p>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역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과 남성 자기 능력에 맞게 하는 거고?</p>
Y	<p>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남자랑 여자랑 구분 짓는게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거.</p>

I	그러면, 최근에 젠더 관련해서 이슈화된 사건 중 트랜스젠더가 슈퍼모델 본선 올라가는데 떨어진애들이 막 뭐라고 한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Y	아, 그 트랜스젠더 그거는 남자라고 봐요 저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어도. 동성애도 저는, 용인은 해줄수 있어요, 저 사람 동성애자다, 용인은 할 수 있어도 이해는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배척은 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보면 약간 병적인,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암튼 그래요. 이게 종교적인 거랑도 연결이 되요, 저는.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사실 인공수정문제, 이거랑 주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신의 영역이잖아요, 겁나요. 저도 저희 엄마도 교회를 다니니까, 뉴스에서 인공수정, 복제 이런 거보면 엄마는 막 말세라고, 저는 막 말세라고 극단적으로까지 생각은 안하는데, 좀 무섭긴해요, 인간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모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이게 능력이 많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보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쓰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그럴거구, 그런 거 같아요.
I	그럼 젠더 이런 부분, 여성과 남성, 여성의 사회진출, 뭐 차별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Y	아, 언니 근데 제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본적이 한 번도 없어서 형제라도 있거나 학교라도 그렇게 다니거나 했으면은 그런데 관심이 생겼을 거 같은데, 저는 페미니즘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같이 가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같이 가자는 진짜 같이 가자가 아닌 거 같아요.
I	그럼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교생은 교생도 여고로 가서
Y	네, 10명 다 여자였어요. (웃음)